

발열황산

발열황산이 수요부진 및 무수황산 대체로 수요가 대폭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황산 대체품으로 수요가 92년 월 1700톤, 93년 1500톤정도 유지됐던 발열황산은 무수황산으로 대체되거나 수요가 감소해 94년에는 월 1200여톤에 머물렀으며 계속적인 수요감소가 예상되고 있다.

이같은 수요감소는 발열황산이 황산과 SO3가 혼합된 형태인데 발열황산 사용기업들이 황산의 처리 곤란 등을 이유로 SO3만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.

또 국내 최대 수요처인 한화가 폭약 생산감소로 구매량을 월 800여톤에서 94년들어 500여톤으로 줄인 것도 한 요인으로 풀이된다.

국내 발열황산 수급현황 (단위 : M/T)				
구 분		1993	1994	비고(공급선)
공 급	고려아연	14,000	12,000	-
	미원상사	6,000	5,000	-
	계	20,000	17,000	-
수 요	한 화	9,600	6,000	고려아연
	울 산 화 학	3,600	3,600	고려아연
	유니코화학	1,200	1,200	미원상사
	기 타	2,600	3,200	고려아연, 미원상사
	계	17,000	14,000	

발열황산의 내수는 한화 외에 울산화학 월 300여톤, 유니코 100여톤, 풍산 등 기타 염안료업체 300톤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.

국내 생산도 소량에 그치고 있는데 공급은 미원상사 월 1000톤, 고려아연 400여톤에 머물고 있다.

국내 생산기업들은 황산과 발열황산, 무수황산을 생산할 수 있는 공정을 갖추고 있어 프로세스 조작으로 생산량을 감축하고 있는데 수출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국내 공급량만을 생

산·판매하고 있다.

발열황산은 반응제 및 염·안료 제조, 색소용 사카린 제조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고품질에는 무수황산 등이 사용되고 있다.

가격은 93년과 큰 차이가 없이 공장도 기준 톤당 5만7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.

< 96 화학연감 >